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6년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



현대경제연구원

# 목 차

---

## ■ 2016년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2016년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 .....	2
3. 시사점 .....	11
<참고문헌> .....	14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16년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

#### ■ 개 요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들이 부정적인 방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물경제가 일정부분 내성을 보이면서 경기 하방 경직성의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들을 보는 시각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았다.

#### ■ 2016년 대내외 주요 경제 이슈

**2016년 대내외 경제 이슈로는 첫째, (미국 경제의 추세) 미국 경제가 향후 성장 동력을 잃고 '더블딥'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IMF는 2015년 1월 전망 시점에서 2016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3.3%로 예측하였으나 1년 만인 2016년 1월에는 2.6%로 하향조정된 바 있다. 반면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최근 미국 경제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비가 견고한 모습이며 소비심리도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FRB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의 위기를 유발하고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실물 경제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미 FRB의 통화정책(기준금리 인상)으로 개도국에서 글로벌 자금이 이탈하여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반면 그 영향을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최근 미 FRB가 중국 등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금리 인상기 세계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중국 경제의 방향성)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향후 경기가 침체 국면(경착륙)의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경기 둔화(연착륙) 정도에 그칠 것인가에 대한 이슈이다.**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들이 심각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금융시장 및 교역시장 경로(국제분업구조)를 통해 한국과 같은 '수출의 對 중국시장 비중'이 높으면서 동시에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서비스업과 같은 내수의 경기안전판 기능이 작동하고 있고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중국정부의 경기안정화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어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저유가의 파급효과) 국제 유가 급락이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경제 회복을 저해(失)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 주체들의 구매력을 높여 경기 회복에 도움(得)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국제유가의 급락을 바라보는 관점들 중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가 저유가가 유발한 디플레이션(deflation)으로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가진다. 반면 긍정론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는 저유가의 원인과 동일한 '세계 경제 전반의 절대 수요부족'이 가져오는 결과일 뿐임을 주장한다. 그래서 유가 하락으로 가계와 기업의 실질 구매력을 높여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진다.

**다섯째, (국내 경기사이클의 향방) 국내 경기가 저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침체(침체지속)를 보일지, 아니면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경기 방향성이 전환(회복진입)될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국내 경기 추세에 대해서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들이 주류를 이룬다. 다만 일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지는 않고 있으며, 경기지수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섯째, (수출 섹터의 전망) 최근 수출 증가율 감소세가 향후에도 지속(비관론)될 것인지, 아니면 경기 개선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 침체 국면에서 탈출(희망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최근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부진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우리 수출경기를 부정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수출 물량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인도, 베트남과 같은 대체 수출시장도 부상하고 있어 희망적인 요인도 상존한다.

## ■ 시사점

2016년 주요 경제이슈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국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조짐도 관찰된다. 따라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對美 수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수출 경기 전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실물 경제가 취약할 경우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금융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화와 시장 변동성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국내로 전이되는 경로에 대한 차단 노력과 중국 내 새로이 부상하는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요구된다. 넷째, 저유가에 따른 구매력 증대 효과가 실물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지속하고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 여섯째, 수출 부문의 새로운 시장 발굴 및 히트 상품 개발을 통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고 핵심 요인인 비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경기의 변동성을 축소시켜야 한다.

## 1. 개 요

-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들이 부정적인 방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대부분의 주장들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고 그 파급영향이 확대되는 발산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경우에는 세계 경제 또는 한국 경제에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됨
-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들이 일정부분 내성을 보이면서 경기 하방 경직성의 조짐도 관찰되고 있어 대내외 여건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도 존재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들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의 내용을 요약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봄
  - 2016년 대외 주요 경제 이슈로는 미국 경제의 추세, FRB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중국 경제의 방향성, 저유가의 파급효과 등임
  - 다음으로 국내 이슈는 국내 경기사이클의 향방, 수출 섹터의 전망 등임

### <2016년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

2016년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	이슈의 내용		
① 미국 경제의 추세	더블딥	vs.	확장
② FRB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부정적	vs.	중립적
③ 중국 경제의 방향성	경착륙	vs.	연착륙
④ 저유가의 파급효과	실(失)	vs.	득(得)
⑤ 국내 경기사이클의 향방	침체지속	vs.	회복진입
⑥ 수출 섹터의 전망	비관론	vs.	희망론

## 2. 2016년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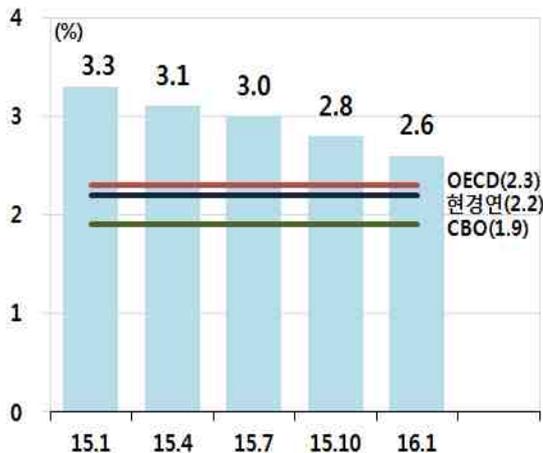
### ① 미국 경제의 추세: 더블딥 vs. 확장

○ 미국 경제가 향후 성장 동력을 잃고 '더블딥'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

- 시간이 갈수록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다소 부정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나타냄

- IMF는 2016년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지난 2015년 1월 3.3%로 예측하였으나 2016년 1월에는 이보다 0.7%p 하향조정한 2.6%로 전망함
- 일부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이 중단되고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더블딥(double)'의 주장도 있음

<IMF의 2016년 미 경제성장률 전망>



<미국의 경기선행 및 소비자신뢰 지수>



자료: IMF(2015a, 2015b, 2015c, 2016d, 2016).  
주: 황축은 전망시점, 선표식은 잠재성장률.

자료: Conference Board.  
주: 음영 부분은 NBER 공식 발표 침체국면.

- 반면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최근 미국 경제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비가 견고한 모습이며 소비심리도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

- 2016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2% 내외 수준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함

- 또한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이 완만하나마 개선중이고, 경기선행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미국 경제의 회복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주장함
- 특히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 수요 부문인 소비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소비 중심의 견조한 경기 회복 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3.7%(민간소비 68.5%, 정부소비 15.2%)로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편임
- 한편 최근 미국 경제 회복의 동력이 소비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기 회복 기조가 약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주장함

② FRB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부정적 vs. 중립적

○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의 위기를 유발하고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실물 경제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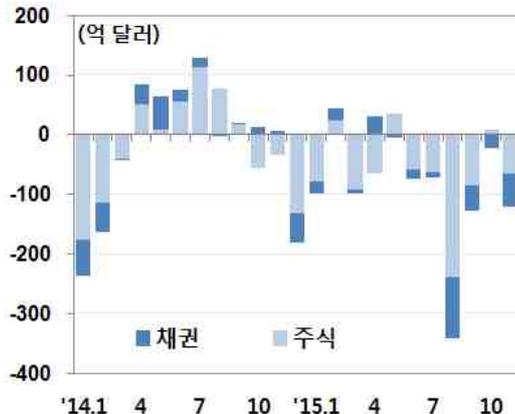
-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미 FRB의 통화정책(기준금리 인상)으로 개도국에서 글로벌 자금이 이탈하여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 주장
  - 미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진입함 (2015년 12월 기준금리 인상)
  - 그러나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에서의 글로벌 자금 유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임

<미국 본원통화 및 기준금리 추이>



자료: FRB.

<신흥국 투자자금 순유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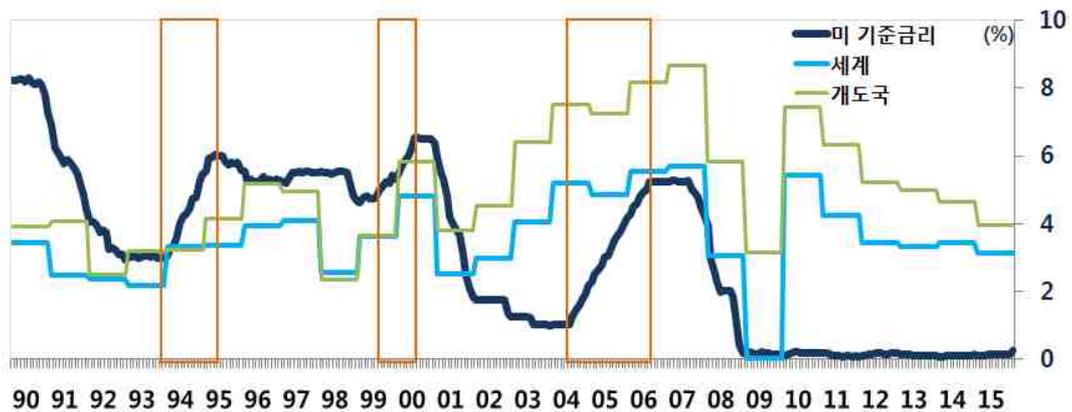


자료: EPFR.

- 반면 그 영향을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향후 미 FRB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미국의 통화정책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발생시키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경우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FRB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경기순응적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과거 미 기준금리 인상기에도 세계 경제와 개도국 경제의 성장률은 상승세를 지속한 바 있음
- 따라서 비록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중에 일부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과거 미 기준금리 인상기의 세계 및 개도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FRB,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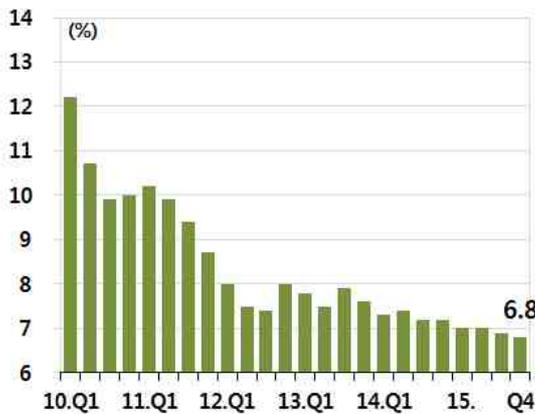
### ③ 중국 경제의 방향성: 경착륙 vs. 연착륙

○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향후 경기가 침체 국면(경착륙)의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경기 둔화(연착륙) 정도에 그칠 것인가에 대한 이슈

-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

-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3년 1분기부터 2015년 2분기까지 7%대 성장을 유지 하였으나,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6.9% 및 6.8%로 하락함
- IMF는 2016년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6.3%로 전망하는 등 중국 경제 의 하방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대 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차이나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이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 로 밀접한 국제분업구조 관계가 구축되어 있어 중국 경제의 불안은 교역국 에 위기를 전염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분석됨
- 차이나 리스크 노출도가 높은 국가들로는 몽고(42.1%), 오만(28.7%), 한국 (10.3%) 등의 순서임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중국인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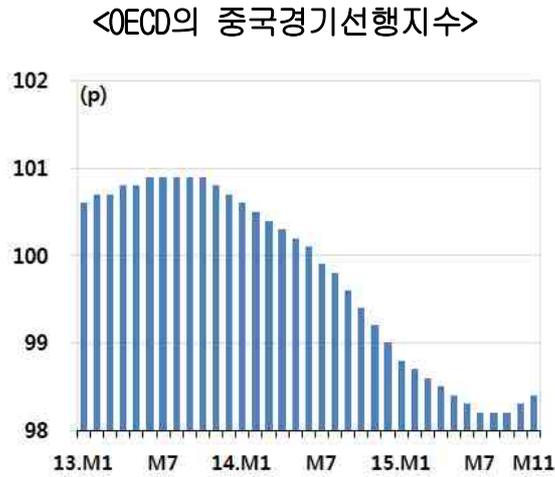
<주요국별 중국 리스크 노출도<sup>1)</sup>(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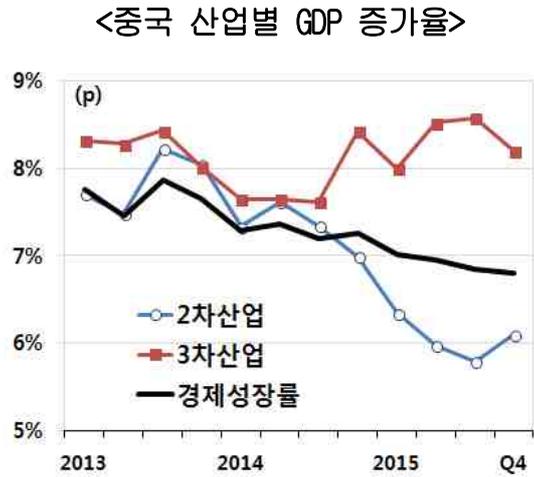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5).

-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최근 중국 경제가 일정 수준의 하방 경직 성을 보이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예상되어 경착륙 가능성은 높 지 않은 것으로 판단
  - OECD는 중국 경기선행지수에 대한 평가에서 일시적일 수 있으나 안정화 징후가 보인다고 언급함
  - 특히, 내수의 핵심이고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서비스업 경기가 호조 를 지속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 하강세가 감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1) 중국 리스크 노출도 = (총수출/GDP) X (대중국수출/총수출).



자료: OECD.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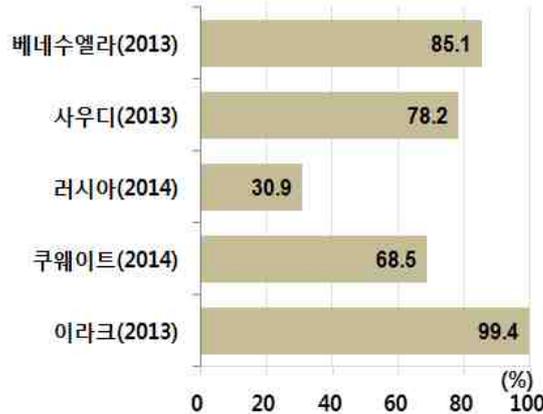
④ 저유가의 파급 효과: 실 vs. 득

○ 국제 유가 급락이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경제 회복을 저해(失)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 주체들의 구매력을 높여 경기 회복에 도움(得)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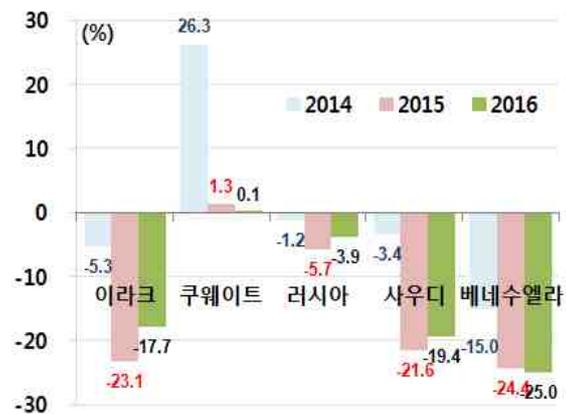
- 국제유가의 급락을 바라보는 관점들 중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가 저유가가 유발한 디플레이션(deflation)으로 침체가 심화되고 산유국들의 거시건전성이 악화되어 세계 경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주장
  - 주요 산유국들은 당분간 국제 유가 하락으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악화 추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2013~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원유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들로는 이라크(원유수출/총수출 99.4%), 베네수엘라(85.1%), 사우디아라비아(78.2%), 쿠웨이트(68.5%), 러시아(30.9%) 등임
  - 특히 주요 원유 수출국들의 재정수지도 유가 하락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여 일부 국가에서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sup>2)</sup>

2)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60달러 및 30달러로 하락할 경우 재정수지는 각각 1,160억 달러 및 2,050억 달러 적자 요인 전망.

<주요 원유수출국 원유수출/총수출 비중> <주요 원유 수출국 재정수지/GDP 비율>



자료: UN comtrade.



자료: IMF.

- 반면 최근의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는 저유가의 원인과 동일한 '세계 경제 전반의 절대 수요부족'이 가져오는 결과일 뿐이며, 유가 하락으로 가계와 기업의 실질 구매력을 높여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도 존재
  - 과거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서 세계 경제에 위험한 신호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의 근본적인 의미(총수요의 부족)에 초점을 맞춘다면, 디플레가 저유가를 유발한 것은 맞으나 저유가가 다시 디플레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함
  - 한편 일부 산유국에서 디플레가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들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칠 것으로 주장함

<과거 유가하락연도(30% 이상) 및 다음연도의 세계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

	연도	유가	원유 수급		세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생산	소비	선진국	신흥국	선진국	신흥국		
1차	1986년	-52.4	5.2	2.9	3.4	3.2	3.6	11.7	2.9	29.9
	1987년	29.4	0.5	2.1	3.8	3.7	4.0	14.6	3.2	38.9
2차	1998년	-33.0	1.9	0.7	2.6	2.7	2.4	6.4	1.6	13.6
	1999년	41.3	-1.6	2.3	3.6	3.6	3.7	6.1	1.4	13.0
3차	2009년	-34.9	-2.1	-1.2	0.0	-3.4	3.1	2.8	0.2	5.2
	2010년	27.1	2.5	3.3	5.4	3.1	7.5	3.8	1.5	5.8
4차	2015년	-47.8	2.6	1.5	3.1	2.0	4.0	3.3	0.3	5.6
	2016년	-	-	-	3.6	2.2	4.5	3.4	1.2	5.1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6d).

주: 1) 전년대비 증감률, 2)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은 IMF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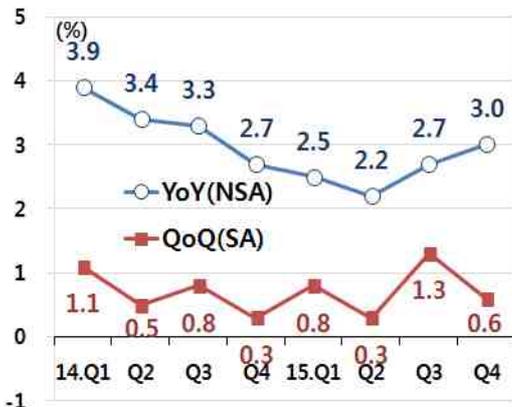
⑤ 국내 경기사이클의 향방: 침체지속 vs. 회복진입

○ 국내 경기가 저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침체(침체지속)를 보일지, 아니면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경기 방향성이 전환(회복진입)될 것인지에 대한 이슈

- 현재 국내 경기 추세에 대해서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들이 주류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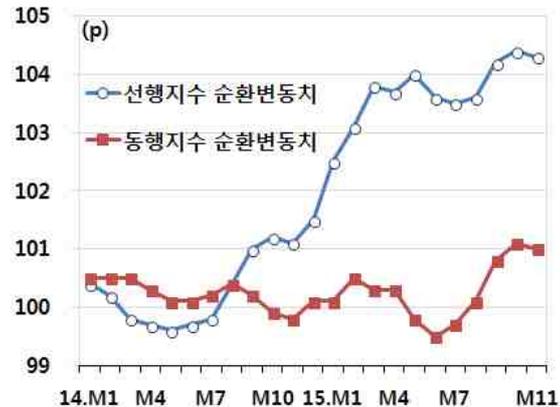
-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2015년 3분기 1.3%, 4분기 0.6%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선행 및 동행지수 모두 추세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으나 11월 지표의 경우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경기 방향성이 불확실한 모습을 나타냄

<국내 분기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국내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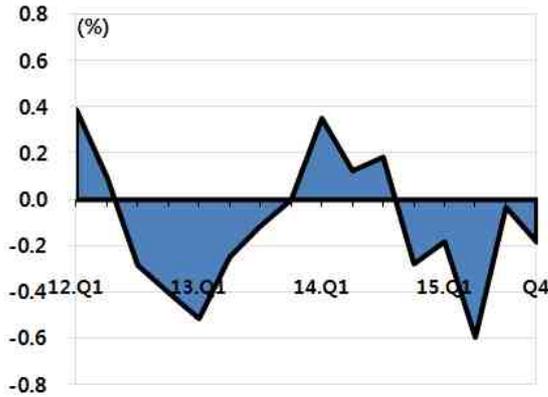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다만 일부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더 크게 악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전환점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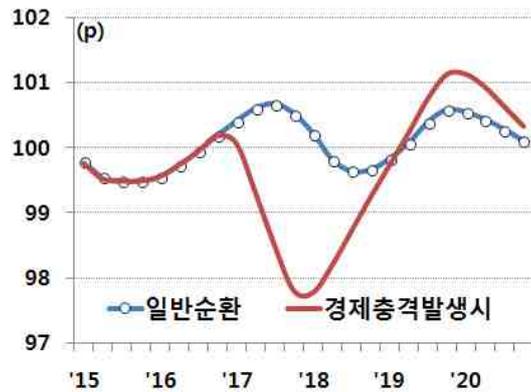
- 국내 GDP갭률이 1년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침체)하고는 있으나 최근에는 그 마이너스 폭(장기 추세선에서 하향 이탈한 정도)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
- 과거 경기사이클과 최근 경제성장률 움직임을 고려하여 경기사이클 추정해 보면, 향후 빠르지는 않지만 경기가 상향 추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한국 GDP 갭률>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경기 사이클 전망>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6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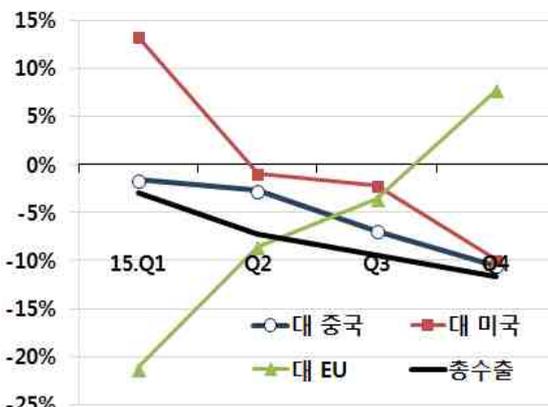
⑥ 수출 섹터의 전망: 비관론 vs. 희망론

○ 최근 수출 증가율 감소세가 향후에도 지속(비관론) 될 것인지, 아니면 경기 개선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 침체 국면에서 탈출(희망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슈

- 최근 세계 경제의 부진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우리 수출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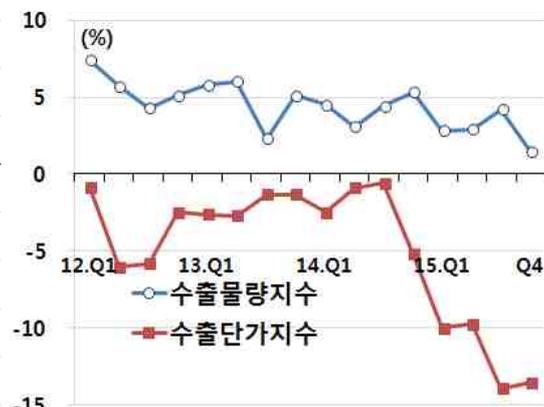
- 총수출증가율은 2015년 1분기 -3.0%에서 감소폭 확대가 지속되면서 4분기에는 -11.7%를 기록함
- 또한 우리의 주력 시장인 중국,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도 큰 폭의 침체를 지속하고 있음

<최근 한국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 수출 단가 및 물량 지수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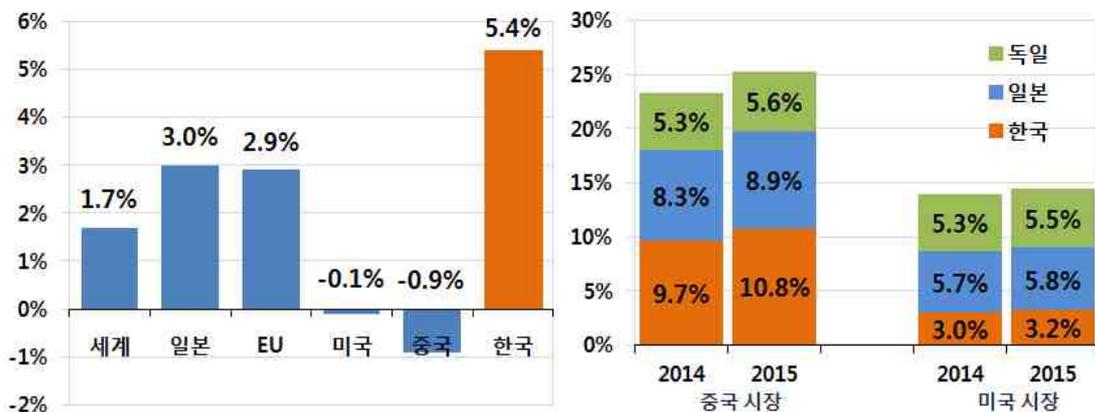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 다만 일부에서는 수출 물량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음을 주장

- 수출 감소는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락에 의한 수출 단가 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
- 분기 기준으로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수출물량은 항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반면 같은 기간 수출단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2015년에 들어 수출단가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산업부에 따르면 2015년 수출 중 유가영향품목에서 289억 달러 감소하였는데 이는 총수출 감소분(455억 달러)의 64%에 달하는 수준임
- 수출증가율 자체는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주요 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중인 것으로 평가됨
- WTO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1~3분기의 수출물량증감률은 5.4%로 세계 평균(1.7%)은 물론 일본(3.0%), EU(2.9%), 미국(△0.1%), 중국(△0.9%)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 한편 우리의 주력 시장인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국별 수출물량 증가율(15. 1~9월)> <중·미 시장에서의 한·독·일 점유율>



자료: WTO, 산업통상자원부(2016).  
주: 2015년 1~9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6).  
주: 2015년은 1~10월.

### 3. 시사점

- 2016년 주요 경제이슈들이 대체적으로 한국경제에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
- 그러나 각 하방 리스크 요인들 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도 존재하고 향후 리스크의 방향이 전환될 조짐도 관찰되기 때문에 동시에 여건이 개선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

첫째, 對美 수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수출 경기 전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 세계 경제 회복의 핵심인 미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국의 수요 및 산업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 강화를 통해 시장과 산업의 트렌드를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임
- 미국의 제조업 부활, 에너지 개발 등에 따른 부품, 소재 등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은 신제품 개발, 맞춤형 마케팅 등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둘째, 실물 경제가 취약할 경우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금융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과 시장변동성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과민 반응은 심리적인 측면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심리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동시에 글로벌 유동성의 이동 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 채권, 외환 시장에서의 투기 자금과 변동성 변화에 대한 감독 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특히 환율 변동성의 급증 현상이 나타날 경우 과도한 변동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 노력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도 필요함

셋째,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국내로 전이되는 경로에 대한 차단 노력과 중국 내 새로이 부상하는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요구된다.

- 중국의 증시불안, 은행부실 등 금융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국내 시장참가자들의 불안 심리 차단 노력이 필요함
-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여 단기적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중국 소비재 시장과 서비스 시장 진출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중국에서 급성장하는 시장인 BT, NT, 실버산업, 친환경 등에 대해 중국 내부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수출확대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임
-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및 내수진작 정책의 수혜업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환경서비스 분야에 대한 진출 모색이 요구됨

넷째, 저유가에 따른 구매력 증대 효과가 실물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도록 하기 위해 유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억제하는 한편,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공공요금에 유가 하락 효과를 적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업의 생산비 절감이 R&D 투자,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 다만 산유국 발 경제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유가가 추가 하락, 또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저유가 기간에 유류 비축량을 증대시키고 산유국에 대한 장기수급계약 조정 등을 통해 원유 수입 비용을 축소하며 원유 자원 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나아가 건설 및 플랜트 부문 역시 원천기술 확보 등을 통해 중동 수주 의존도를 벗어나 선진국 및 신시장에 대한 진입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다섯째,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지속하고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

-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추진력을 얻고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회복 속도가 예상 수준보다 하회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경기 부진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책 입안과 실행 간의 시차를 줄여 경제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정치, 사회갈등 등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임

**여섯째, 수출 부문의 새로운 시장 발굴 및 히트 상품 개발을 통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고 핵심 요인인 비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경기의 변동성을 축소시켜야 한다.**

- 새로운 시장 발굴 및 히트 상품 개발을 통한 신규 수요 확보를 통해 수출 확대의 전기 마련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함
-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확충하고 글로벌 생산·유통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무역구조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요구됨
- 고기술·고부가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신흥공업국들과의 기술적 차별성을 유지하는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임

## &lt; 參考 文獻 &gt;

- IMF(2015a),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Update: Cross Currents(January 2015).
- \_\_\_\_\_ (2015b),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April 2015: Uneven Growth: Short- and Long-Term Factors(April, 2015).
- \_\_\_\_\_ (2015c),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Update, July 2015: Slower Growth in Emerging Markets, a Gradual Pickup in Advanced Economies(July, 2015).
- \_\_\_\_\_ (2015d),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Adjusting to Lower Commodity Prices(October, 2015).
- \_\_\_\_\_ (2016),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Update(January, 2016).
- OECD(2016), OECD Composite Leading Indicators, News Release, 11 January 2016.
- KDI(2012),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하락요인분석”
- 산업통상자원부(2016), 2015년 수출입 동향 및 2016년 수출입 전망, 보도자료 (2016.1.1).
- 한국은행(2016),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 현대경제연구원(2015), “2016년 10대 경제트렌드”, 경제주평, 15-52(통권 673호).
- \_\_\_\_\_ (2016a), “2016년 수출 회복의 다섯 가지 희망 요인”, 경제주평, 16-01(통권 674호).
- \_\_\_\_\_ (2016b),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경제주평, 16-03(통권 676호).
- \_\_\_\_\_ (2016c), “미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동향”, 현안과 과제, 16-4호.
- \_\_\_\_\_ (2016d), “최근 유가 급락의 한국 경제 파급영향”, VIP REPORT, 16-02 (통권 640호).
- \_\_\_\_\_ (2016e), “최근 경기순환의 특징과 전망”, 현안과 과제, 16-05호.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